(754)

조 선

주체108
(2019)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
주체108(2019)년 4월

차　　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진행 · · · · · ·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 · · · · · · · · · · · · · 2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진행 · · · · · · · · · · · · · · · · · · 6

민족적대경사, 드팀없는 의지 · · · · · · · · · · · · · · · · · 8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봄명절을 맞으며 · · · · · · · · · · 1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 · · · · · · · · · · · · · 12

서른번째로 열린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 · · · · · · · · · · 14

웰남국가예술단의 공연 《봄날의 해빛》 진행 · · · · · · 15

강철생산으로 들끓는다 · · · · · · · · · · · · · · 18

자체의 기술력을 강화하여 · · · · · · · · · · · · · · 20

만화영화창작가들 · · · · · · · · · · · · · · · · · 22

년대를 이어 발전하여 온 조선의 전당체조 · · · · · · · · · 24

조선우표박물관 · · · · · · · · · · · · · · · · · 30

양로원에서의 하루 · · · · · · · · · · · · · · · · · 32

여섯번째로 받은 최고상 · · · · · · · · · · · · · · · 34

금코끼리상의 주인들 · · · · · · · · · · · · · · · · 35

교육환경이 일신된 교정에서 · · · · · · · · · · · · · · 36

민족의상의 특색을 살려 · · · · · · · · · · · · · · 38

조산원영웅 · 40

북관대첩비 · 41

표지: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며 휘날리는 공화국기
사진 조선중앙통신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가 4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제출할 국가지도기관구성안에 대하여
3. 조직문제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이후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의 성과와 결함을 총화분석하시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당면목표와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자력갱생과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을 토의하고 셋째 의정을 보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가 자력갱생을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내세우고 자립경제건설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강국건설이 주되는 정치적과업으로 나선 오늘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자는것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을 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나라의 종합적국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서 획기적인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계기로 된다.

글 강수정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발전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일심단결, 자력갱생 대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대표하여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사회주의조선의 정치사상적힘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중대한력사적임무라고 하시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주의 혁명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되여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당은 사회주의정권이 나아갈 지침을 안겨주고 모든 국가활동을 옳바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이며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 관철자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방침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화를 개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부문별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정권기관들과 일군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력사적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고,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협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력사적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숭엄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세계의 각광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계기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력사를 써나간다는것을 세상에 알린 력사적인 선언인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였으며 미국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여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리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였다고 하시였다.

우리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였다고, 그런데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고, 다시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되여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백번, 천번 우리와 다시 마주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것이며 저들의 리속을 하나도 챙길수 없을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움직임들이 로골화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다고,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로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수 있다고 오판하고있다고,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것과 다를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미국이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어쨌든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설의 마지막부분에서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나아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4월 11일과 12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새로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등의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경모하여 묵상하였다.

1일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 선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최룡해대의원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하였으며 이 제의는 전체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회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을 토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을 토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을 토의하고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2일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투쟁과업,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공화국정부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과 실천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조성된 현정세를 분석평가하시고 조선로동당과 정부가 견지하여야 할 대외정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총진격해나아가는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글 최광호

민족적대경사, 드팀없는 의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경축하는 중앙군중대회가 4월 13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는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 근로자, 청년학생, 인민군장병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축보고에 이어 경축연설들이 있었다.

보고자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받아안은것은 주체조선의 력사적사변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천만대중에게 필승의 신심과 투지를 배가해주는 대경사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오늘의 경사는 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시며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앞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눈부신 위훈과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봄명절을 맞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장엄한 자력갱생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가고있는 조선인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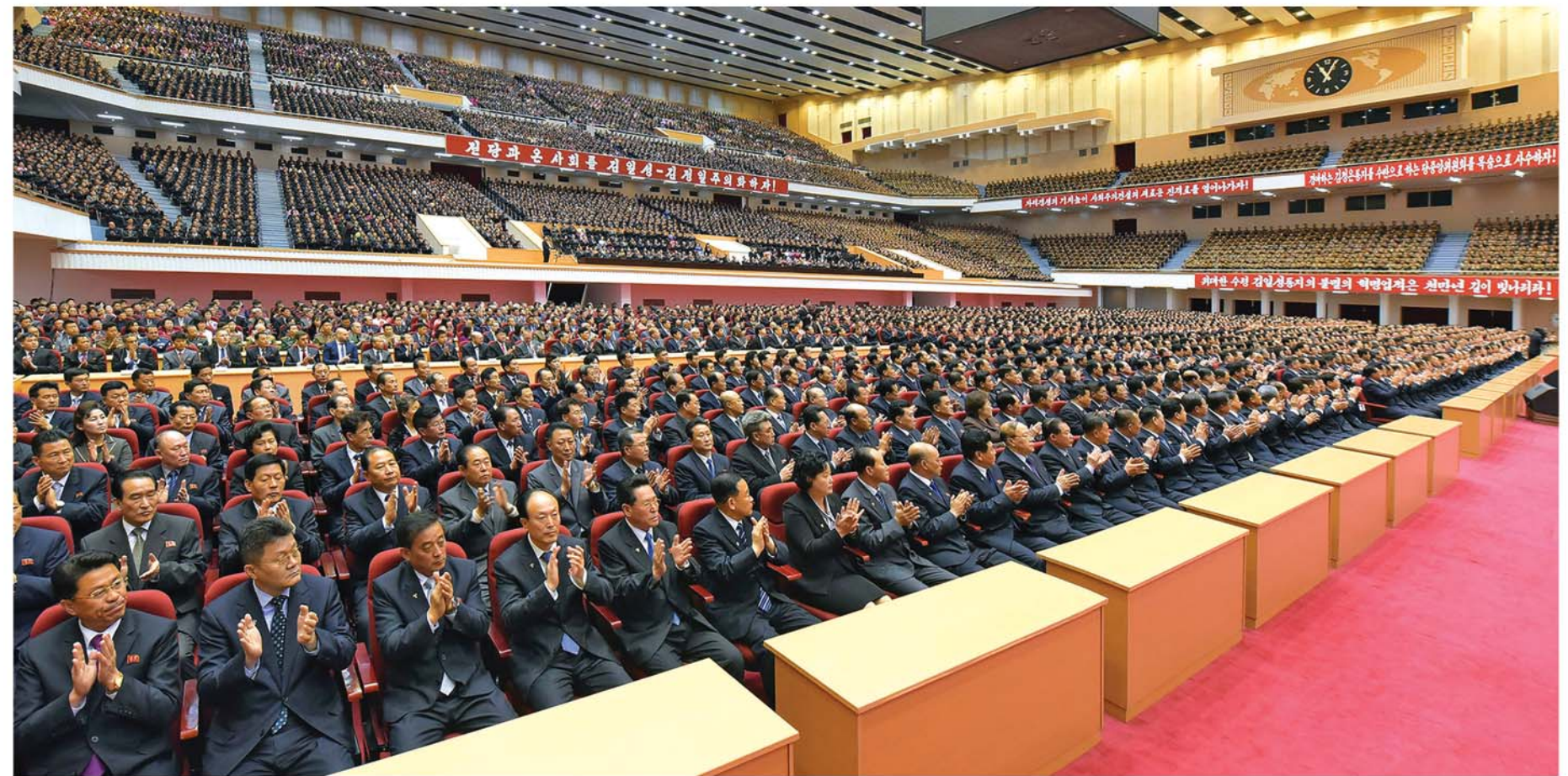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애국업적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초석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를 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력사적대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각 도, 시, 군, 련합기업소들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이 진행되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일군들은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뜻을 키우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태양절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인민군장병들이 평양의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21차 **김일성**화축전장과 각 도들의 **김일성**화전시회장으로 절세위인을 우러르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다.

평양의 삼지연관현악단극장에서 태양절경축 삼지연관현악단음악회가 진행되고 여러 극장과 문화회관들에서 제6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참가자들의 태양절경축공연이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예술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공연무대가 펼쳐지고 경기장과 체육관 등은 다채로운 체육경기들로 흥성거렸다.

태양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평양과 각 도들에서 진행되고 각지의 소년단야영소들에서는 첫기 야영이 시작되였다.

(16페지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는 4월에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동지와 함께 4월 16일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잘 꾸린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양어장에 와서 귀중한 혁명사적자료들을 다시 보니 한평생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전사들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더해진다고,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양어장을 양어의 본보기단위로, 세계적인 양어기지로 개건현대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로고를 떠나 오늘의 신창양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여러 양어못들과 물고기알깨우기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양어장의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창양어장이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기치를 들고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양어기술발전의 척도를 보여주는 표준양어장, 나라의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본보기단위, 교육단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해나갈데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4월 16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한 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륙과 각이한 공중전투동작들, 착륙 등 모든 비행조작을 능숙하고 세련되게 진행하는 비행사들의 몸에 익은 비행술을 지켜보시며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그 어떤 비행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분계선표말도 철조망도 없는 하늘에서 무거운 육체적부담을 이겨내며 순결한 량심으로 조국의 령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우리 비행사들이 있기에 인민들의 행복한 래일이 지켜지고 사회주의조국은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모든 비행사들이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불굴의 매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글 최의림

서른번째로 열린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

김일성경기장에서 개막된 제30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는 조선과 중국, 마로끄, 케니아, 에티오피아선수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마라손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사진 리광성, 홍광남

웰남국가예술단의 공연 《봄날의 해빛》 진행

사진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제21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되였다.

(11페지에서 계속)

제6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공연이 평양시안의 여러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강철생산으로 들끓는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면서 철강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 및 기술발전목표를 높이 세우고 모든 기술자, 로동자들을 그 실현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강철직장의 기술자, 용해공들은 전기로들의 관리와 조작을 개선하여 차지당 쇠물량을 늘이고 용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있다.

압연직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고 공정간 련계를 치차처럼 맞물려 압연강재생산현장마다에서 혁신적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그들은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에 열복사체와 관절식페열차단문, 반수성가스화체계를 새롭게 받아들여 열효률을 높임으로써 가열로의 생산성을 1. 2배이상으로 높이고있다.

가스발생로직장의 로동계급은 가스발생계통에 대한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분쇄기와 알탄성형기, 콘베아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원료를 절약하면서도 알탄의 질과 량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여 질좋은 가스를 생산하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요구하는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할 열의에 넘쳐있는 련합기업소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여 강철증산의 동음은 계속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사진 안철원, 글 김선경

자체의 기술력을 강화하여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늘이고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강원도 원산시 내원산동에 자리잡고있는 원산구두공장은 지방의 크지 않은 경공업공장이지만 전국에 널리 알려져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생산적혁신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에서도 계속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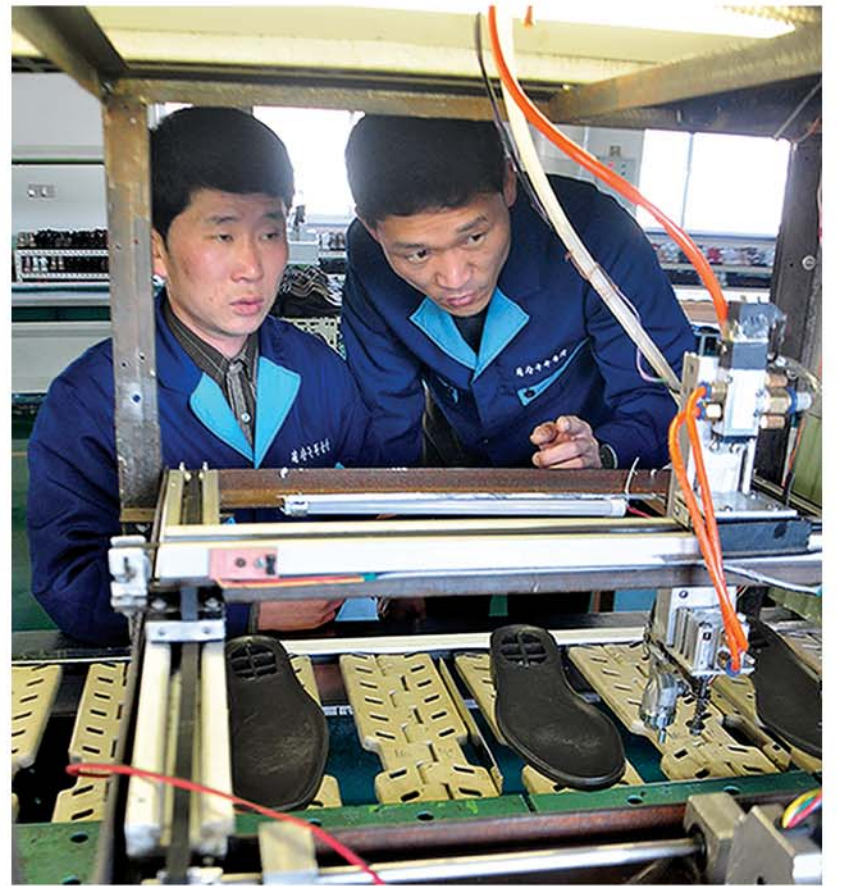
최근에만도 신발공업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접착제를 새로 개발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톨루올을 국내원료로 대신할수 있게 하였으며 접착세기측정기와 구두창자동풀칠기를 연구도입하여 유해로동공정을 완전히 없애고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였다.

많은 종업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있는 공장에서는 도안가들뿐아니라 재봉공, 제화공을 비롯한 종업원들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참가하는 도안합평회 및 제품품평회가 정상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지난해만도 160여개의 새 도안들이 창작되여 70여개가 실현되였다.

이 나날에 제품의 종수는 전해에 비하여 1.3배나 늘어나게 되였으며 공장에서 출품한 《매봉산》구두는 《전국신발전시회-2018》에서 사람들이 제일먼저 찾는 인기상품으로, 명상품으로 평가되였다.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하며 높은 목표를 향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는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일본새는 올해에도 계속 높이 발휘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영조

만화영화창작가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은 대상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유년시절부터 이곳에서 만든 만화영화들을 즐겨보면서 그리고 그 영화의 주제가들을 애창하면서 성장하였기때문이다.

주체46(1957)년 9월의 창립이후 아동들의 심리와 정서교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훌륭한 만화영화들을 수많이 창작하여오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이 촬영소에서는 오늘날 청소년들과 근로자들모두에게 생활의 리치와 교훈 등 풍부한 지식을 안겨주는 만화영화창작을 기본으로 자기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그러자면 아동들의 심리적특성만을 반영하던 종전의 창조수법과 방식에서 벗어나 종자선택과 주제설정을 새롭게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난관을 헤쳐야만 했다.

창작가들은 이미 50부까지 만들었던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다시 100부작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한부한부 완성하면서 작품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가고있다.

최근년간 촬영소에서는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력사물주제의 만화영화 《고주몽》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고주몽(B.C. 298년-B.C. 259년)은 조선의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 (B.C. 277년-A.D. 668년)를 세운 시조왕이다.

력사에 실제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대의 력사적사실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만화영화를 만드는것은 이곳의 창작가들에게 있어 힘겨운 사업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대사회의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고주몽,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동족의 단합을 위해 헌신하는 그를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모를 박으면서 어렵고 방대한 창작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대본에 현대적인 만화영화제작기술까지 도입된 영화들은 나오자마자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조선인민의 감정정서에 맞는 주제와 형식들을 갖춘 만화영화들을 만들기 위한 줄기찬 창조활동을 벌리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년대를 이어 발전하여 온 조선의 집단체조

1960-1970년대

대집단체조 《혁명의 시대》중에서 주체54(1965)년

인민상계관작품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중에서 주체61(1972)년

대집단체조 《위대한 주체의 기치따라》중에서 주체64(1975)년

1980년대

집단체조 《공화국이 걸어온 40년》중에서 주체77(1988)년

대집단체조 《오늘의 조선》중에서 주체78(1989)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내외의 수많은 관람자들을 매혹시키며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조선에서 집단체조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의 힘있는 수단으로서 해방후부터 평양은 물론 각 도와 시, 군, 학교들에서도 적극 장려되여왔다.

주체50(1961)년 9월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경축하여 대집단체조 《로동당시대》가 진행되였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체육예술적화폭으로 펼친 작품은 그 내용과 형상수준에서 우수하였을뿐아니라 기성의 틀을 마스고 새로운 창조방법들을 받아들인것으로 하여 집단체조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이때부터 조선의 집단체조는 여러 체육적형상수단들과 함께 배경대미술, 취주악과 방창, 무용률동 등 예술적수단들을 배합하여 체육기교와 함께 높은 예술성을 보장하는 새형의 종합체육형식으로 되였다.

주체60(1971)년 11월 체조, 미술, 음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재능있는 전문가들을 망라한 집단체조창작단이 조직됨으로써 조선의 집단체조는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대집단체조 《일심단결》 중에서　주체79(1990)년

대집단체조 《수령님 모신 내 나라》 중에서　주체81(1992)년

이곳의 창작집단에 의하여 인민상계관작품들인 《조선의 노래》, 《당의 기치따라》,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와 같은 명작품들이 지난 세기의 년대들마다에 수많이 창작되였다.

창작단에서는 지난 기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서의 집단체조창작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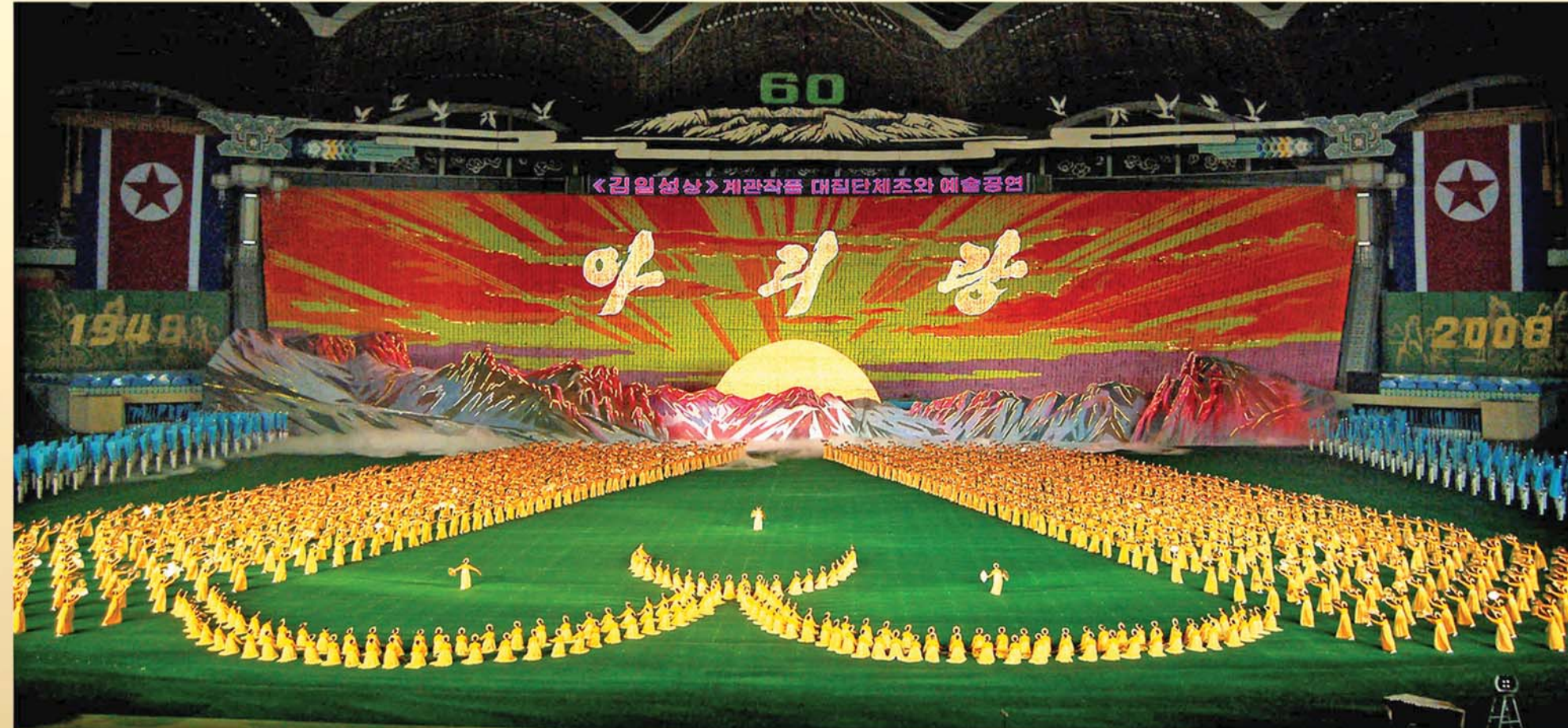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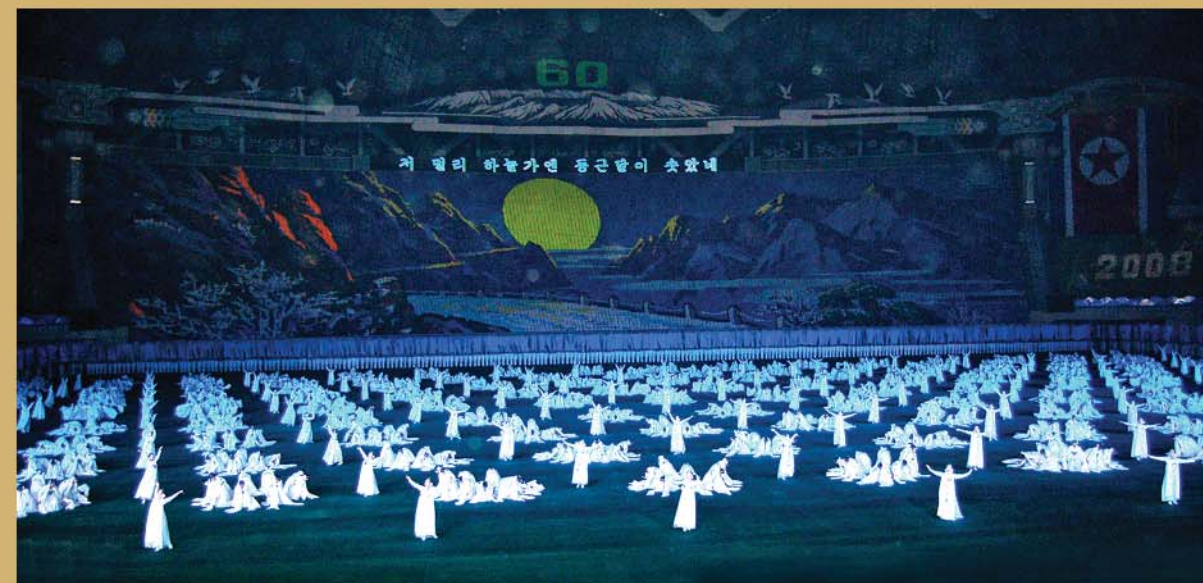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곳의 창작가들은 **김일성**상계관작품들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아리랑》을 내놓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들의 높은 실력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창작과정에 더욱 훌륭히 발휘되였다.

근 50년간 이 부문에서 일해오는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체육인인 최숙명연출가를 비롯한 창작연출부의 연출가들과 배경대창작부 부장 송성찬, 체조창작부 부장 문정남, 음악창작부 부장 리희성 등 일군들이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앞장에서 개척해갔다.

하기에 세계언론들과 외국인들은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세계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격찬하였다.

만족을 모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줄달음치는 집단체조창작가들의 열정과 더불어 집단체조의 자랑찬 력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글 강수정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중에서　주체97(2008)년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기니스세계기록집에 등록되였다.

2010년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중에서 주체107(2018)년

집단체조창작가들

연출창작부

음악창작부

체조창작부

배경대창작부

세계 여러 나라들에 집단체조를 보급하였다.

조선우표박물관

평양의 창광거리에 조선우표박물관이 자리잡고있다.

주체101(2012)년에 우표전시관으로부터 박물관으로 된 이곳에서는 우표문화를 보급하고 우표를 전시, 판매하는 기능을 다같이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조선의 고대 및 중세 우편통신력사와 근대우편제도의 설립과정을 보여주는 력사자료들, 우표관련유물들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조선이 해방(1945. 8. 15.)된 이후 발행된 우표, 우편엽서들이 모두 전시되여있다.

주체35(1946)년 3월 12일 조선에서의 우편업개시를 기념하여 첫 우표들인 《무궁화》와 《삼선암》이 발행되였다.

이때부터 단순히 우편료금의 지불을 확인하는 증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을 넓혀주고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적극 리용되여오고있는 조선우표는 정보통신이 급속히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의 매력을 잃지 않고있다.

조선에서는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의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기념우표들이 태양절과 광명성절 그리고 여러 국가적명절들을 맞으며 계속 발행되여오고있다.

그리고 지난 70여년간 공화국이 정치와 경제, 과학과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들을 보여주는 우표들도 많이 발행되였다.

하여 명절 등을 계기로 열리는 국가우표전시회때마다 조선우표박물관은 공화국이 걸어온 년대들을 한눈에 집약적으로 새길수 있게 하는 우표들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참관자들로 항상 만원을 이루고있다.

박물관에는 민족적전통과 풍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는 조선인민의 생활모습을 형상한 우표들, 세계정치 및 국제체육 등의 분야에서 일어난 중대사건들, 우표수집가들의 기호를 반영한 우표 등도 수많이 전시되여있다.

박물관에는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국제우표전람회들에서 조선우표들에 수여한 상장과 컵, 메달들도 전시되여있다.

이밖에도 국가상징물들을 비롯하여 조선의 력사와 문화, 동식물, 민족적풍습 등이 반영된 수많은 우표들을 게시한 전시판들이 있으며 우표보급매대와 기념품매대가 꾸려져있다.

최근에 새로 개건된 박물관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보다 훌륭한 참관환경을 제공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충복

조선의 첫 우표인 문위우표

전시된 다양한 우표들

새 조선의 첫 우표인 《삼선암》과 《무궁화》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DVD우표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우표카드

세계우표시장과 전람회에서 받은 상장과 메달들

양로원에서의 하루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각 도들에 있는 양로원들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년로자들의 생활조건과 환경이 더욱 개선되였다.

지난해 4월에는 평안북도 의주군 대산리의 풍치 아름다운 지구에 평안북도양로원이 새로 일떠서 자기 주인들을 맞이하였다.

붉은색기와를 얹은 2층짜리 ㅁ자형건물인 양로원에는 32개의 침실들과 함께 년로자들이 건강과 취미,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도록 오락실, 영화감상실, 운동실 등이 훌륭하게 꾸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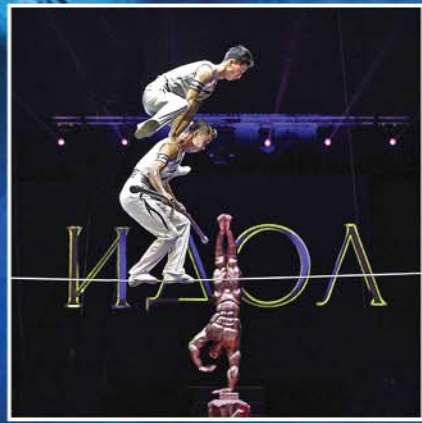
그리고 식사실과 치료실, 목욕탕, 리발실, 세탁실을 비롯하여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 시설들도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100여명의 년로자들이 풍부한 영양섭취와 적당한 로동, 유희와 운동을 포함한 충분한 휴식이 결합된 다채롭고 즐거운 생활을 매일 펼쳐가고있다.

년로자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그들에게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국가의 시책을 받들어 친자식의 심정으로 년로자들의 일과생활을 세심히 돌보고 따뜻이 보살펴고있는 양로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그리고 도와 군의 당, 정권기관일군들뿐아니라 여러 기업소, 단체들과 주민들, 청소년학생들도 지성어린 물자들을 가지고 자주 이곳을 찾아오고있다.

그때면 평안북도양로원에서는 모두가 한가정, 한식솔처럼 어울려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더 높이 울려퍼지군 한다.

사진 홍태웅, 글 박병훈

여섯번째로 받은 최고상

《이돌-2018》세계교예예술축전에서 조선의 교예배우들이 6번째로 최고상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축전에는 조선과 중국, 로씨야, 도이췰란드, 프랑스를 비롯한 13개 나라에서 온 130여명의 교예배우들이 30여개의 작품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체력교예 《쇠줄타기》에 출연한 조선의 교예배우들은 안전그물이 없는 무대의 6m높이에 설치된 쇠줄우에서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뒤공중돌아서기와 3인건너뛰기 등 난도높은 기교동작들을 련이어 펼침으로써 모든 심사자들과 관중들을 매혹시켰다.

이 작품에 축전의 최고상인 이돌금상과 관중평가금상, 대중보도금상이 수여되였다.

글 최의림

금코끼리상의 주인들

체력교예 《날파람의 기상》에 수여된 축전최고상인 금코끼리상

제8차 금코끼리상 국제교예축전이 지난 2월 에스빠냐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조선과 로씨야, 중국, 몽골, 콜롬비아 등 13개 나라의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날파람의 기상》, 《상모놀이》를 비롯한 체력교예종목들을 가지고 출연한 조선의 국립교예단 배우들은 세련되고 열정적인 형상과 높은 기량으로 날로 발전하는 교예예술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상식에서는 체력교예 《날파람의 기상》에 축전의 최고상인 금코끼리상이 수여되였다.

글 김미예

교육환경이 일신된 교정에서

려명거리의 한가운데 대성구역 려명소학교가 있다.

원래 평양금성거리소학교로 불리우던 학교는 주체106(2017)년 이 지구에 려명거리가 일떠서면서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는것과 함께 명칭도 달라지게 되였다.

즐비하게 늘어선 고층살림집들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서있는 두개의 교사에는 40여개의 교실들과 동식물표본실, 자연실 등 학습실들이 훌륭하게 꾸려져있다.

그와 함께 모든 형태의 수업과 과외교양활동 그리고 교무행정사업과 관리운영사업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현대화, 정보화가 실현되였다.

학교에서는 소학교부문 교육내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데 맞게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교원들속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이는 속에 새로운 교수방법들이 탐구, 도입되고 여러가지 교편물들이 창안제작되여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교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좋은 작용을 하고있다.

결과 학생들속에서 최우등생들이 늘어나는것과 함께 뛰여난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있으며 전반적인 실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학교에서는 태권도, 탁구, 음악, 무용소조를 비롯한 과외소조들의 활동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난해에 태권도소조원들은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태권도경기에서 3등을 하여 새 학교의 이름을 떨치였다.

그리고 5학년의 남령, 한태웅, 4학년의 김진아, 황담이, 김철주학생들은 《우리 교실》 문학상을 받았다.

오늘 이 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치고 자기 자식이 대성구역 려명소학교에 다닌다는것을 은연중 자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나 없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민족의상의 특색을 살려

개점한지 4년도 안되는 미래과학자거리조선옷점은 평양시안의 수많은 조선옷점들중에서 가장 청소한 단위의 하나이지만 이미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것은 이 거리의 상징건물인 53층살림집의 기단층에 위치하고있어서만이 결코 아니다.

이곳에서 제작하는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어린이옷을 비롯한 갖가지 민족옷들은 일상옷이나 례복이나 할것없이 모두가 고상하고 우아한 조선옷의 아름다움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편의봉사기지의 첫째가는 특징은 옷도안을 매우 특색있게 한다는것이다. 조선옷의 양상을 살리는데서 기본은 여러가지 색갈과 장식을 잘 조화시키는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옷도안가의 실력에 의해 담보된다.

이곳 책임자인 박금선은 평양미술종합대학을 졸업한 의상미술전문가이다.

그는 주문자의 요구뿐아니라 얼굴형태와 몸매, 직업과 나이까지 머리속에 떠올려보면서 은근한 색과 고상한 무늬장식이 멋진 조화를 이룬 도안들을 창작하여 내놓는다.

섬세한 옷가공기술은 이 조선옷점이 지니고있는 다른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높은 기능을 소유하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은 조선옷의 형태적특징의 하나인 륜곽선들을 살리는데 세심한 주의를 돌리면서 깨끗하고 소박하면서도 은근하고 부드러운것을 좋아하는 조선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옷들을 제작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하기에 이들의 깊은 사색과 노력이 슴배인 조선옷들을 받아안으며 주문자들 누구나 기쁨과 만족을 금치 못한다.

미래과학자거리조선옷점에서 출품한 민족옷들은 전국조선옷전시회들에서도 여러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도시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까지 이곳을 끊임없이 찾아오는것으로 하여 이들의 일손은 언제나 드바쁘다.

사진 최원철, 글 정기상

아름다운 조선옷의 매력을 더욱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로력영웅, 박사, 부교수 최정심은 오늘도 활력에 넘쳐 교육사업에 전심하고있다.

조 산 원 영 웅

보건부문에서 60여년동안 일해오는 평양의사재교육대학 교원 최정심은 사람들로부터 조산원영웅이라고 불리우고있다. 그는 한생토록 산부인과분야에 종사하면서 연 8만여명의 임산부들에게 해산방조를 주어 새 생명들을 받아냈다.

최정심은 19살에 고향인 강원도 회양군의 군인민병원 조산원으로 의료활동의 첫걸음을 떼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낡은 봉건유습에 물젖어 해산방조를 경원시하던 이 산골군의 녀성들에게는 외태머리를 한 처녀조산원이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 햇내기로만 보였다.

하지만 최정심은 자기를 꺼림직하게 여기며 멀리하는 임신부들을 한명한명 찾아다니며 그들을 모두 등록한 다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여다니며 온갖 지성을 기울였다. 사경에 처한 중환자들이 제기될 때면 자신의 피까지 수혈하면서 소생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십여명의 보조조산원들까지 양성함으로써 3년만에는 군안의 모든 녀성들에게 100% 해산방조를 주게 되였다.

나라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보건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한 최정심의 공로를 값높이 평가하여 주체50(1961)년 6월 22살 나던 그에게 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그후 평양의학대학(당시)을 졸업하고 가정을 이룬 최정심은 인민군 군관인 남편을 따라 자강도에 가서 강계의학대학병원(당시) 산부인과 과장으로 10여년동안 일하였다. 주체69(1980)년 녀성들을 위한 종합의료봉사기지인 평양산원이 일떠서는것과 함께 수도로 올라온 이후에는 이곳의 3산과 과장으로 20여년동안 사업하였다.

년로보장나이보다 10년을 더 일하고 퇴직한 후에도 녀성들과 새 생명들을 위해 달음쳐온 최정심의 발걸음은 늦춰질줄 몰랐다. 그는 도서 집필을 다그치는 한편 고향땅도 자주 밟으면서 군의 의료활동을 적극 도와나섰다.

그러던 최정심은 주체96(2007)년 6월 68살의 나이에 평양의사재교육학교(당시)의 교단에 서면서 삶의 새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교육사업에 남다른 애착을 지닌 그는 자기의 자질을 부단히 높이면서 새 교수방법들도 강의들에 능숙하게 활용해나갔으며 그 과정에 부교수가 되였다.

그는 또한 전국적으로 산전교육체계를 세우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집필활동도 계속 내밀었다.

최정심이 자기의 림상활동경험을 종합하여 집필발행한 후 증보판까지 나온 도서 《이상산과림상》은 오늘 전국의 모든 산과의사들에게 매우 요긴한 참고도서로 되고있다.

그가 도서 《임신과 건강》에 이어 주체100(2011)년에 내놓은 도서 《아이를 총명하게 키우려면》도 2년후 증보판을 또 발행하였지만 그 수요는 아직 끝을 보지 못하고있다.

오래동안 진행하여오던 무통해산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론문을 완성하고 주체105(2016)년 7월 의학박사가 된 최정심은 오늘도 녀성들과 후대들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계속 이어가고있다.

사진 리다정, 글 최광호

평양의학대학(당시)을 졸업하고 평양산원에서 과장으로 사업하였다.

북관대첩비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에는 조선의 귀중한 력사유적의 하나인 북관대첩비가 서있다.

북관대첩비는 16세기말에 있은 임진조국전쟁시기 함경도(당시)의 정문부의병대가 이 지방에 기어든 일본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한것을 기념하여 1708년에 세운것이다.

당시 함경도북평사였던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대는 림명, 쌍포 등의 전투들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단천에서 전투를 벌린 다음 백탑에서 마지막전투를 벌려 적들을 최종적으로 격파함으로써 함경도지역에서 침략자들을 완전히 몰아냈다.

높이가 187㎝이고 너비 66㎝, 두께가 13㎝인 비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실과 의병들이 이룩한 승리 등을 기록한 2천여자의 글이 새겨져있다.

1905년에 로일전쟁을 구실로 조선에 침입했던 일제침략군의 한 장교가 당시의 길주목 림명마을부근에 서있는 이 비를 보게 되였다.

이자는 자기 나라의 강도적침략행위와 수치스러운 참패의 진상을 가리우고 조선의 귀중한 력사유적을 유린말살하려는 목적밑에 기회를 노리다가 1906년에 극비밀리에 일본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북관대첩비를 훔쳐간 일제는 처음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석재와 조각술 등이 너무도 훌륭하고 뛰여난것이여서 식민지에서 가져온것이라고 하면서 남겨두었다.

그후 흑막속에 묻히였던 북관대첩비의 행처는 1983년 8월 일본의 어느 한 신문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였다. 비는 일본의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쟈의 어느 구석에 버려진채로 있었던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의 반동세력은 조선민족의 얼을 짓뭉개버린다는 의미로 비석을 무게가 1t이 넘는 커다란 돌로 짓눌러놓기까지 하였다.

전 조선민족이 단합하여 지난 2006년 3월에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는 인륜도덕도 문화유산도 모르는 일본반동들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며 오늘도 옛 모습그대로 서있다.

사진, 글 박영조

낸곳 : © 조선화보사 2019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신재철 13606-198089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